

태저 조기 이유의 실제와 이론

윤 덕 영

〈중앙일보 양돈장 번식주임〉

다음은 중앙일보 양돈장번식주임으로 있는 윤덕영씨가 본인자신이 농장에 근무하면서 실제 체험한 바를 조기 이유의 실제와 이론이란 제목으로 일반 양축가에 소개하고 있다. 윤덕영씨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50~60일 사이에 이유를 실시하여 모돈에게 너무 체력적으로 손실을 가져와 생산성을 떨어뜨려 수익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고 자신이 체험을 통해 조기이유 가능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20일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시사하여 매우 고무적인 조언을 주고 있어 본지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1. 조기 이유란

이유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 어미 돼지의 젖을 먹이지 않고 타 물질로 영양을 공급하여 기른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선 일반적으로 50~60일 사이에 이유를 실시하여 모돈에게 너무 체력적으로 손실을 가져와 생산성을 떨어뜨려 수익면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비경제적 이어서 이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실제 체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만큼 이유 기간을 단축시킬수 있으며 어떤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가를 나열해 보기로 하겠다.

이유 실시는 원래 초유를 먹인 자돈을 아무 때나 실시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선진국과 같이 완전한 이유 사료인 처음 먹이 A B가 생산 제조 되고 있지 않아 난점이 많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20일까지 단축 시켰으며 현재 7일 이유를 시험하고 있는데 곧 실행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과 우리나라 양돈을 비교해 볼때 너무나 거리가 먼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 양돈도 훌륭한 사료 개발과 기술이 뒤 따르다면 가능 하겠다 할 수 있지만 실제 사료가 생산 된다 하더라도 단가가 비싸기에 소규모 양돈가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 난점이 따르고 있다. 현재 여러 기업 양돈에서 30여일 까지 실시하고 있고 본인이 일하고 있는 양돈장에서도 30일로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성적이 장기 이유 보다 오히려 우수하다.

따라서 지금은 일부를 15일로 단축 시험을 하고 있는데 발육이 과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유 모돈의 건강이 양호하여 이유후 7일 이내에 발정이 오고 있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2. 조기 이유의 장점

조기 이유에 따라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욱 많기에 그 장점을 나열해 보면,

- ㉠ 생후 50일령 체중이 자연 포유시 보다 더 무겁다.
- ㉡ 한배 새끼의 우열이 적고 균일하다.

㉔ 사고사가 적어 한배당 새끼를 더 많이 얻는다.

㉕ 새끼 사료의 영양분을 완전히 조절 할수 있어 최대의 발육을 시킬 수 있다.

㉖ 빈혈증 설사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모돈에서 감염 되는것)

㉗ 모든 사료를 절약 한다.

㉘ 재 발정이 빨리 오므로 번식 두수를 증가 시킨다.

㉙ 노쇠한 모돈의 체중이 격감 되지않아 시장 매매시 수익이 높다.

이상 8가지의 장점이 있지만 이에 비례하여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란 좋은 시설이 필요하고 위생 문제가 대두 되며 아울러 우수한 관리와 기호성이 높은 완전한 배합사료 개발과 이에 따른 자본이 필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3. 이유 요령

조기 이유시의 자돈은 완전히 사료에 익숙 되어 있고 체중도 최소한 10kg 이상 이어야 하는데 이는 짧은 기간에 완전히 균형 잡힌 사료로 건강하게 성장 시킨후에라야만 가능한데 여기에는 시설과 기술이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유 모돈에게 많은 사료를 주어 자돈의 포유 기간이 길게 하여 장기 이유를 하는데 이 수유모돈에 급여하는 많은 사료를 단기로 하고 대신 그 줄인 사료량의 비율로 사료 공장에서도 양돈가가 직접 조기 이유용 처음 먹이를 개발하여 실시 하는게 현명하다 하겠다. 이유를 실시하는 요령은 이유전과 이유후의 사료를 다르게 하지말고 소화잘 되고 기호성이 높게 해주며 대장균 등에 의한 각종 설사 및 기관지 병의 예방으로 항생제나

소화제를 첨가함은 물론 노 분의 상태를 살펴 설사 징후가 보이면 사료량을 조절하고 모돈을 이유시켜 자돈을 그대로 포유 돈방에서 50일 정도 사육 시키는게 좋다 아울러서 관리자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야겠다. 만일 30일 여유를 목표로 하고 시행할 적에는 분만 7일 후부터 사료를 급여하고 20일 부터는 낮에 모돈과의 생활을 점차 줄여 주며 27일 부터는 밤에만 동거 시키고 31일에 이유 시키는게 현명하다 하겠다. 이 처음 사료 급여시는 좀체로 사료를 먹지 않는데 관리자가 1~2일 정도는 자돈의 입에 사료를 손으로 조금씩 넣어 주어 사료맛을 익혀주면 점차 먹게된다.

이렇게 실행 하자면 사람의 손이 많이 필요 하게 되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장기간이 아니고 같은 그룹의 모돈 10두는 1인이 가능하므로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4. 조기 이유용 사료 및 급여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완전한 조기이유용 처음 먹이 사료가 없으므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시판용 포유 자돈용 사료에 타물질을 첨가하여 급여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기에 본인이 직접 실시한 방법을 아래에 나열해 보겠다.

㉚ 분만후 7일에 급여 하는 사료는 젓먹이용 사료(포유 자돈용)에 인공유를 혼합 급여 하는데 그 비율은 사료 50%에 인공유(탈지분유, Denkavit) 50%이다. 급여기간은 5일이면 족하다.

㉛ 5일이 지난후에는 어느정도 사료에 대한 섭취 능력이 생긴후이므로 비율을 조금 떨어지게 하며 이때가 자돈이 초유를 통해 받는

※ 조기 이유를 실시하면,

- ① 생후 50일령 체중이 자연포유시보다 무겁다.
- ② 한배 새끼가 균일하며,
- ③ 한배당 새끼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 ④ 새끼사료의 영양분을 완전히 조절할 수 있어 최대의 발육을 시킬 수 있다.
- ⑤ 빈혈증 설사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 ⑥ 사료의 절약,
- ⑦ 번식 두수의 증가,
- ⑧ 노쇠한 모돈의 체중이 격감되지 않아 시장 매매시 수익이 높다.

면역 항체(감마그로블린)가 줄고 자체의 힘으로 항체를 만드는 시기이므로 설사등 질병에 걸리기 쉬운 기간이다. 따라서 항생제와 소화제를 혼합급여 하여 설사등이 없이 건강하게 자라게끔 해야만 한다. 사료 혼합 비율은 사료 79% 인공대유 20% 항생제와 소화제를 1% 내외로서 10일 이면 된다.

◎ 이후로는 사료량의 10% 내외의 인공 대유유를 혼합 급여 하며 31일에 이유하고 계속하여 5일 정도 급여 한다. 이 과정이 지난후 완전 출하 및 분류시까지 2~3%만 혼합 급여 하면 자돈이 건강하고 발육도 장기 포유한다 자돈들 보다도 빠르게 된다. 이상의 방법으로 실행하면 실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두들 인공유인 분유나 덴카비트의 단가가 비싸 타산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쉬우나 모든 사료량의 절감과 번식 회전수를 따져 보면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kg당 단가를 위 방법으로 했을 때 산출되는 것은 사료 포유돈용이 kg당 83원이고 인공유가 450~500원 인데 혼합 급여시는 이유시 까지의 총 단가가 186원이 들게 되므로 생각할 문제라 하겠다.

5. 조기 이유와 일반이유와의 차이

처음에 모돈을 50일간 수유 시켰더니 허약해져서 이유후 휴양기간을 20~30일이 필요하여 재 증부시까지의 가격이 너무 벌어져서 1년에 2산 하기에다 바쁜데 30일 이유를 실시 한후는 이유후 7일 이내에 80%이상 발정이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참고 문헌에 있는 년 2.5회의 번식도 가능하게 되어 가고 있으며 이유후 50일령 자돈 평균 체중도

현격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처음 시도 할때엔 10복(모돈10두씩을 가지고 실시하였는데 50일령 자돈 체중은 조기 이유가 좀 떨어졌지만 모돈의 재 발정도 월등하게 좋았다.) 2차 시험때는 20복씩 실시 했는데 이때는 관리자나 모든 여건이 처음보다 향상 되어서 인지는 몰라도 자돈 체중모돈의 재 발정이 모두 조기 이유구가 현저하게 좋았다.

자돈 체중 면만 보아도 조기 이유 군은 평균 15.7kg인 반면 장기 이유군은 13.8kg 약 2kg정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폐사도 4두가 더 많이 장기 이유군에서 나타나고 있다. (압사 및 허약사 설사) 이상과 같이 조기 이유를 함으로써 모든면에 장점이 나타나고 있어 하루바빠 널리 보급 되어야 겠으며 점차 조기 이유 기일을 더 단축 시켜야 겠다.

6. 조기 이유의 전망

우리 나라의 양돈도 점차 선진국에 따라 가기 위해 직접 사료 메이커에서 훌륭하고 완벽한 처음먹이 사료 개발이 앞서서 생산되어 양돈가가 자유 자재로 이유일을 조절 할 수 있게 하여야만 되겠으며 여러 기업 양돈 사업장에서는 비밀로 하지말고 새로운 방법등을 공개 하여 모든 양돈가에게 보급시켜 보다 나은 기술을 전달 해야 하겠다.

현재 본 양돈장에서는 15일령의 조기 이유 시험중이기에 결과가 나타나면 다음 기회에 지면을 통하여 소개 하기로 하며 모든 양돈가가 관심 깊은 조기 이유의 전망은 우리나라에서도 최대한 20일 까지는 가능해 지리라 생각 된다

* 이유요령

이유요령은 이유전과 이유후의 사료를 다르게 하지말고 소화가 잘되고 기호성이 높게 해주며 설사나 기관지 예방을 위해 항생제나 소화제를 첨가하고 노분의 상태를 살펴 설사경우가 보이면 사료량을 조절하고 모돈을 이유시켜 자돈을 그대로 포유 돈방에서 50일 정도 사육시키는 것이 좋다. 만약 30일을 이유 목표로 한다면,

- ① 분만 7일후부터 사료를 급여하고,
- ② 20일 부터는 모돈과의 생활을 점차 줄여주며,
- ③ 27일부터는 밤에만 동거시키고
- ④ 31일에 이유시킨다.